

86, 88 그리고

環境의 質



盧 在 植
(本協會 副會長)
(韓國에너지研, 首席專問委員)

아마도 지금부터 만 2년 및 4년뒤의 이때쯤이면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게임을 각각 끝마친 다음 흥분과 환호의 殘影속에 어떤 虛脫感마저 갖게 되지 않겠나 싶다.

그간 本報는 開國 이래의 最大國事라고도 일컬을 수 있는 이 두 體育行事を 앞두고 다섯차례에 걸쳐 環境保全과 관련된 有備無患을 위한 提言과 念願같은 뜻을 실어 보았다.

그 결과 이 두 게임에 대비하여야 할 모든 일들이 이미 必要性을 논할 단계를 넘어선 當爲의 要求로서 강조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진 것으로 본다.

물론 主競技場과 補助競技場을 포함한 각종 土木工事が 이미 完工되었거나 部分的으로 建設中에 있으며 또 漢江綜合開發工事も 아울러 推進中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不透明한 가운데 거림칙한 餘韻을 남기고 있는 것은 과연 快適한 環境造成이 두 게임에 앞서 適期에 實現될 수 있겠는가 라는 문제라고 본다.

지나친 老婆心이 아니길 바라면서도 이런 염려를 하게 되는데에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즉 1983년 유고슬라비아의 사라예보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중이던 때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저 유명한 로스엔젤레스(LA)市의 大氣汚染을 우려한 나머지 LA, 올림픽조직위원회의

에게 과거 4년간의 대기오염기록을 제출토록 요구한 사실이 있었으며 또 1982년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국제女子마라톤大會에서 우승한 뉴질랜드의 엘리슨 로우嬢이 스스로 보유하고 있는 記錄에도 못미치게 된 원인을 서울의 大氣汚染 때문이었다고 서슴치 않았던 場面이 기억나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긴 필자도 그 마라톤경기의 중계방송을 직접 視聽하면서 다소의 苛責을 느꼈기 때문에 얼굴이 화끈해졌던 기억이 난다. 경기도중 텔레비전 중계등 매스컴 車輛과 大會運營車輛(先導차량과 코치차)등이 지나치게 先頭그룹에 접근해서 매연을 뿜어냄으로써 選手들의 레이스에 큰 支障을 주었던 것이다.

그 당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매스컴 스스로도 詰難한 바 있었지만 이번 달구벌(大邱)에서 개최된 全國體典 마라톤레이스에서도 先導車·中繼車 등이 先頭그룹에 너무 바짝 붙어 呼吸困難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마침내는 “마라톤「煤煙」에 혈떡”이라는 헤딩을 큰 고딕체로 活字化시키고 말았던 것이다. (동아일보 10월 15일자 9면) 또 마라톤레이스가 있었던 바로 그날 저녁 KBS 프로(여기는 大邱)에서는 텔레비전 중계차 하나 정도만 따라 붙어도 선수들의 呼吸에 지장이 있다는 이홍열 선수의 인터뷰 내용이 보

도된 바 있다. 즉 마라톤코스의 大氣汚染度 자체는 견딜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바로 코앞에서 내뿜어댄 시커먼 煤煙과 排氣가스의 洗禮가 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생생한 報導取材도 重要하겠지만 記錄까지도 低調케 하는 惡影響을 미치는 取材競爭이 되었다면 이를 깊이 反省하고 다시는 이와같은 不詳事가 재발되어서는 안된다고 믿는다.

이점 지난 LA올림픽 경기대회 기간중 선수촌 경비에 동원된 차량이나 마라톤 레이스때의 誘導車와 텔레비전 카메라車를 大氣汚染과 騒音이 없는 電池車(Battery Car)로 配車하였다는 그들의 슬기와 비교할 때 너무나 對照的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우기 컴퓨터와 自願奉仕隊의 운영 등을 동원·시도하면서 86·88에 대비한 豫行연습도 겸하였던 이번 65회 全國體典에서 바로 2년전의 잘못이 再演되었다는 사실에 못내 아쉽고 딱하게만 느껴진다.

일반적으로 大氣汚染이 문제가 되는 운동경기 종목은 室外競技 특히 경기시간이 긴 陸上경기(마라톤 포함)와 필드하키 등이며 室內競技에는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기에 LA올림픽조직위원회측에서는 大氣汚染의 영향을 많이 받는 육상경기와 마라톤경기 등의 進行時間을 大氣汚染이 가장 심한 한낮 동안을 피한 이른 아침 또는 오후 늦은 시간에 배정하였으며 각 보조경기장은 大氣汚染이 거의 없는 西部外廓에서 進行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는 것이며, 만일의 경우 大氣汚染이 甚化될 가능성이 큰 氣象條件 즉 바람이 자거나 氣溫逆轉條件下에 놓이게 될 때 또는 地形的으로 大氣汚染이 尤甚해질 특성을 지닌 지역에서는 LA型 大氣汚染의 主因인 自動車의 通行을 통제하는 대책까지도 세웠다고 한다.

따라서 86·88 두 大競技를 맞게될 잠실 主競技場과 여러 補助競技場에서의 開催期間中(季節)의 大氣汚染을 면밀히 事前 調査해서 동기간중의 微氣象과 大氣汚染간의 상관관계를 時·空間別로 검토한 다음 다시는 大氣汚染이 口舌數에 오르지 않도록 效果的 汚染低減對策을 미리부터 세워 두어야 마땅할 것이다.

이점 얼마전 環境廳이 兩大競技를 치를 首都圈의 大氣汚染을 줄이기 위하여 주경기장 등 首都圈 23개지역의 大氣를 특별관리키로 한 것 등 적절한 대책을 수립·추진하기로 하였더니 다소 마음이 놓임을 느낀다. 즉 동 대책에는 移動精密測定車輛을 도입해서 지속적으로 大氣汚染準位를 측정하여 地域別 특별관리요령을 制定·施行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다만 여기서 똑같은 排出量率인 경우에도 微氣象條件에 따라서는 大氣汚染準位가 엄청나게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증시하여 中央氣象台와의 有機的인 협조가 이루어진 科學的 대책으로 발전시키기를 바란다.

한편 最近刊 서울시보(84.10.5일자)에 의하면 汚染없는 源水를 끌어들여 上水를 생산함으로써 안심하고 마실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 또한 흐뭇한 記事였다. 더하여 上水 자체의 水質은 良質이라 할지라도 이 上水가 공급되는 과정에서 汚染될 수 있는 送配水管의 改良도 과감히 실시중이라하니 더 반갑다. 부디 이런 朗報가 하루빨리 現實的으로 모든 首都圈 거주민들에 의해서 즐겨지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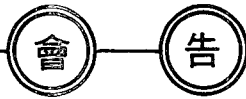
유럽이나 영국에서는 源水의 水質 자체가 硬性이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수도물 아닌 다른 음료를 사서 마셔야 하지만 우리나라 自然水는 대부분의 경우 軟性이기 때문에 水質의 保善管理만 잘 한다면 얼마든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良質의 上水生産이 가능한 금수강산임을

자랑으로 해야 한다.

어떤 臨迫한 時點에 가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도 되지 않겠는가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처럼 한심한 경우는 없어야 한다. 그 이유는 環境의 質的改善이나 保全이라는 것이 일시적이거나 즉흥적인 계획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어려움이 內在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無知의 所致로 그

렇게 생각하기에 이른 때문이다.

엄청나게 莫大한 經費를 강요하는 사업이기에 두 경기개최 직전까지 完工하겠다는 當局의 계획도 이해할만 하지만 福祉國家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한 一連의 作業이므로 日程을 조금이라도 더 앞 당겨 完工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奔發있기를 거듭 促求해 마지 않는다. *



우수한 技術人力을 會員社에 추천합니다

産業의 高度化로 야기되는 公害問題!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누구도 외면할수 없는 우리들의 문제를 본협회에서는 各会社 및 工場의 公害문제를 전반적이고 포괄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자문을 드리고자 아래업무를 개시하고 여러분의 이용을 바랍니다.

1. 자가측정 대행업무

- 1) 대기 : 입자상물질(분진)검명(매연),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특정유해물질등 측정.
- 2) 수질 : PH, COD, BOD, SS, N-Hexane추출물질, 중금속등 各種 水質分析.

2. 자가측정 실험실습교육

측정시설은 갖추어도 기술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실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3. 상담실 운영

상담실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각종상담은 물론, 우수한 기술인력을 회원사에 추천해 드립니다.

4. 종합진단

폐수처리장 기능과약및 효율측정, 설비를 위한 기초자료 및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등을 측정, 평가하여 기술지도를 제공합니다.

公害問題를 해결해 드립니다

社團 法人 環境保全協會